

# “내년 시즌에도 KIA ‘타이거즈’”

(타)

### 2023 시즌 팀 타율 0.279로 2위...강렬한 타격 선보여 이범호 타격 코치 “지속성 유지·선수들 마음 가짐 중요”

KIA 타이거즈 화려한 전성, 이미 시작됐다. KIA는 2023시즌 0.279로 LG에 이어 팀타율 2위를 기록하는 등 강렬한 타격을 선보였다. 뜨거운 연승을 이끈 타격은 내년 시즌에도 KIA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범호 타격 코치도 올 시즌 전체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코치는 “모든 선수가 자기가 올라와야 하는 시점에 올라와 준 것 같다. 작년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경기 나가는 선수들이 해야 할 목표치에 도달했던 것 같다”며 “올 시즌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다.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자 숙제다.

이범호 코치는 “아쉬운 점은 좋은 타격이 조금 더 지속되지 못한 것이다. 타격이 좋을 때는 상대 에이스 만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점수를 냈는데, 어떤 날에는 대체 선반한테도 점수를 못 내고 끌려가기도 했다”며 “잘 쳤을 때 유지하는 것과 좋지 않은 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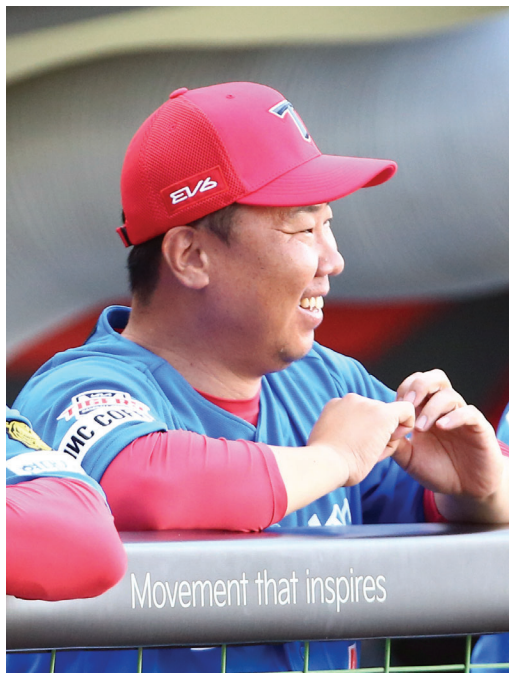
들을 어떻게 초반에 빨리 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에 큰 희망과 아쉬움을 바탕으로 이 코치는 ‘유지’와 ‘마인드’를 키워드로 꼽았다.

이 코치는 “해줘야 할 선수들이 유지를 해줘야 밑에 선수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팀이 강해진다. 기존 선수들은 안 아프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목표치를 주는 게 아니라 경기 출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다”며 “여기서 한두 명이 성장해 준다면 내년 시즌도 괜찮을 것 같다. 올해 훈련 100개 간신히 넘었는데, 130개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개 정도만 올라가면 팀이 훨씬 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성장이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마인드’를 강조했다. 마무리캠프에서도 이 코치는 마인드를 이야기하며 강하게 조언했다.

그는 “고참 선수들은 올 시즌 가지고 있었던 스윙 결이라든지 좋은 자세 유지하려고 했고, 좋은 성적



이범호 타격 코치

을 못 낸 선수는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강도 높게 지도했다”며 “마음가짐도 그렇고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훈련 잘 따라와 줬다. 훈련 끝나고 난 뒤에 선수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캠프였다”고 말했다.

특히 강하게 몰아붙였던 변우혁, 한준수, 김석환도 이 코치의 기대대로 잘 따라왔다.

이 코치는 “주전으로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포지션은 5-6개 정도가 있다. 1루수, 외야 한 자리, 포수가 받쳐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백업 선수 중에서 타격 능력 가진 선수가 많다. 좋은 날 좋은 날 차이가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변우혁, 한준수, 김석환 이런 선수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올라와 줘야 하는 선수들이고, 본인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캠프에서 ‘특타 많이 시켜주시시오’라는 말을 많이 했다. 말로만 잘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연습량으로 충분히 보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루키’ 이상준도 이 코치가 유심히 지켜본 선수 중 하나다.

이 코치는 “좋은 능력을 갖췄다. 좋은 선수 잘 뽑아주었다. 말이 별로 없고, 묵묵하게 했다. 빠른 시간에 충분한 능력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인성, 강민호 그런 선수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격은 민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기대가 된다”며 “캠프 때 타격 자세는 일부러 건드리

않았다. 타격폼을 체크하고 스프링캠프 가게 된다. 어떤 느낌이 다른지 보려고 눈으로 익혔다. 가지고 있는 능력, 편치력 등 어떤 부분에서 프로에서 빨리 적응하고 좋은 선수로 갈 수 있을지 계산했다”고 말했다.

또 “선수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작은 변화로 큰 장점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점검했다. 분석팀도 될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게 어떤 선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분석팀과 그런 이야기하면서 캠프 때는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캠프에서 2024시즌 밀그림을 그렸던 이 코치는 이미 스프링캠프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는 “부상을 안 당하는 내에서 스프링캠프에서도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승부를 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며 “캠프 가니까 가서 준비한다’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캠프에 합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캠프는 승부다. 승부하는 곳에서 몸을 만들 수는 없다. 고참 선수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고참 선수들이 할 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2월 스프링캠프에 앞서 치열한 1월을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동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전반 대표팀 손흥민이 헤더로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초호화 멤버, 64년만에 춤출 준비 됐다

###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출전 명단 26명 발표

### 손흥민·이강인·황희찬 등 ‘예상대로’...광주FC 이순민·EPL 김지수

클린스만호가 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CGV에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연맹(AFC) 아시안컵에 도전한 26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그간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정예’로만 대표팀을 운영해온 클린스만 감독인 만큼 최종 명단에 ‘깜짝 발탁’은 없었다.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토트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 ‘철기둥’ 김민재(빈첸) 등 초호화 멤버들이 카타르 도하에서 우승 도전에 나선다.

유럽 무대에서도 톱 레벨의 선수로 인정받는 이들의 이름값을 놓고 볼 때 한국 축구의 아시안컵 도전사에서 가장 강력한 전열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공격수인 손흥민(11골), 이강인(1골), 황희찬(10골)이 올 시즌 유럽 리그에서 넣은 득점수는 22골이나 된다.

김민재는 빈첸에서 거의 전 경기에 풀타임 출전했고, 최근에는 헤더로 득점도 하나 올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위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한국 축구 팬이라면 뿌듯해질 시기”라면서 “한국은 우승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퍼즐’을 잘 맞춰서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깜짝 발탁은 없었지만 그간 클린스만 감독이 소

집 때마다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인 26명보다 적은 24명 안팎의 선수를 불러들였던 만큼, 비교적 새로운 얼굴은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퍼드 소속의 센터백 유망주 김지수가 선발됐다. 또 오현규와 함께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서 뛰는 측면 공격수 양현준도 뽑혔다.

이들은 유럽 원정으로 치른 지난 9월 소집 때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뽑히지 않았다. 양현준은 9월 웨일스와 경기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렀고, 김지수는 경기를 뛰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불박이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해왔으나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 황희조(노리치시티)를 대체할 스트라이커 자원을 특별히 뽑지는 않았다.

대체 자원으로 2023시즌 K리그1 득점왕 주인공(울산)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새 얼굴을 뽑는 대신 기존 포워드 자원인 오현규와 조규성을 선택했다. 광주FC의 이순민도 아시안컵 도전에 함께한다.

클린스만호는 국내와 위주로 15명의 본진을 꾸려 국내 한 호텔에서 체력 단련 중이다. 여기에 조만간 황인범(즈베즈다)이 합류할 예정이다.

본진은 내달 2일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 아부다비에서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손흥민, 이강인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은 아부다비에서 3일 클린스만호에 합류,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대표팀은 다음달 6일 아부다비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 뒤 내달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조별리그에서 E조에 속한 한국은 내년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바레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첫 대회와 1960년 한국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아시안컵을 2연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0년 넘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준우승만 4회에 그치며 늘 자존심을 구겼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 축구대표팀 26인 최종 명단

▲골키퍼(GK) = 김승규(알샤바브),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 벨마레)

▲수비수(DF) = 김영권, 정성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진수(전북), 이기재(수원), 김주성(서울), 김지수(브렌트퍼드) ▲미드필드(MF) = 이순민(광주),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박용우(알아인), 이재성(마인츠), 홍현석(헨트),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 문선민·박진섭(이상 전북), 양현준(셀틱) ▲공격수(FW) =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연합뉴스

# EPL 두자릿수 득점 황희찬 ‘휴~’

### 28일 브렌트퍼드전 허리 부상으로 교체...“심하지 않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고 허리 통증으로 교체된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부상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도 당담아 기쁨을 쏟아내렸다.

황희찬은 28일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코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하고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지만, 전반 추가 시간 허리 부상으로 교체됐다.

황희찬은 1-0으로 앞선 전반 14분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골키퍼의 공을 빼앗아 빈 골대를 갈랐고, 2-1로 앞선 전반 28분에는 멀티골을 완성했다.

리그 9, 10호 골을 연달아 넣으며 개인 처음이자 손흥민(토트넘)에 이은 한국인 역대 두 번째로 EPL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기쁨도 잠시, 황희찬은 전반 추가 시간 상대 골대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장 크리크 벨레가르드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왔다.

아시안컵을 볼까 보며 정도 남긴 시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크나큰 약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이날 리그 10골 고지를 밟고 EPL 득점 공동 4

위인 손흥민, 제러드 보언(웨스트햄·이상 11골)에 이어 단독 6위로 올라선 황희찬은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과 함께 대표팀 호화 공격진의 핵심이다.

다행히 황희찬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황희찬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큰 부상은 아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그저 다시 골을 넣어 행복할 뿐”이라며 “놀라운 동료들, 스태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울버햄프턴의 게리 오닐 감독 역시 황희찬의 부상 정도에 대해 “단순 허리 근육 경련이다. 많이 나아졌다”고 설명한 뒤 “황희찬은 빨리 쾌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닐 감독의 걱정은 황희찬의 부상이 아닌, 아시안컵 출전에 따른 황희찬의 공백 그 자체에 있었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나서기 위해 잠시 팀을 떠난다”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것도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즌 EPL 10골(2도움),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등 총 11골을 기록 중인 황희찬은 오는 31일 오전 0시 에버턴과의 EPL 20라운드 경기가 끝나는 대로 클린스만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포항-전북 ‘또 만났다’

### ACL 16강 격돌...울산은 일본 고후와 대결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만났던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가 아시안컵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전에서 다시 격돌한다.

울해 K리그1 우승팀인 울산 HD는 반포대 고후와 한일전에 나선다.

포항과 전북은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3-2024 ACL 대진 추첨에서 16강 상대로 결정됐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16강 1차전은 2월 13~14일, 2차전은 2월 20~21일에 열리는데, 1차전은 전주, 2차전은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해 K리그1 2위와 FA컵 우승을 차지한 포항은 조별리그 J조에서 6경기 무패(5승 1무) 1위로 16강에 올랐다. 이후 박태하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16강전을 통해 데뷔하게 됐다.

2023시즌 K리그1에서 4위에 자리했던 전북은 이번 ACL에선 F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두 팀은 지난날 FA컵 결승전에서 맞붙은 데 이어 또 한 번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게 됐다. FA컵 결승에선 포항이 4-2로 이겨 통산 5번째 우승

을 달성한 바 있다.

K리그1 챔피언 울산은 일본의 반포대 고후와 8강 진출을 두고 경쟁한다.

울산은 이번 ACL 조별리그에서 J조 2위에 올라 16강에 진출했고, 지난해 일왕배 우승으로 ACL에 출전한 J2리그의 고후는 조별리그 H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13일 ‘울산 HD FC’로 구단 명칭 변경을 발표했던 울산은 이번 ACL에서는 변경 전 명칭인 ‘울산 현대’로 나선다.

동아시아 지역 다른 매치에선 최강희 감독의 산둥 타이산(중국)이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 맞붙으며, 방콕 유나이티드(태국)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일본)가 격돌하게 됐다.

서아시아에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는 알 나스르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파이하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이밖에 알나사프(우즈베키스탄)-알아인(아랍에미리트), 세파한(이란)-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나브바호르(우즈베키스탄)-알아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